



깊이거름주기 장치 농촌진흥청, 농업용 트랙터플라워' 신기술 지정

- 국내 유일 독창적 기술 인정...비료량 20% 절감·탄소 차단 동시 실현
- 7일 깊이거름주기 장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7일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저탄소 혁신 농기계인 깊이거름주기 장치인 '농업용 트랙터플라워'를 최종 신기술로 인정하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신기술로 인정받은 농업용 트랙터플라워는 트랙터 경운 작업과 동시에 토양 속 25~30cm 깊이에 비료를 직접 투입하는 기술이다. 특히 신기술농업기계 최종 종합심사에서 “국내외 유사 제품이 전혀 없고, 비료 절감 메커니즘 등 핵심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종합 평가를 받으며 차별화된 혁신성을 공식 입증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신기술로 지정된 농업용 트랙터플라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법적 우대 혜택을 바탕으로 전국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유사 제품이 없는 독창적 기술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깊이거름주기 장치(농업용 트랙터플라우) 주요 개발 효과]

#비료 및 경영비 절감: 양분을 토양 깊숙이 투입해 유실을 차단함으로써 질소비료 사용량을 대폭 절감, 농가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차단: 질소 성분의 대기 접촉을 막아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가스 발생을 논에서는 제로(0) 수준, 밭에서는 70% 이상 차단한다.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양분 지속성이 높아 뿌리 활력을 돕고 벼, 논콩 등의 생산량을 늘리며, 웃거름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한다.

	모델명	3련 고정
	크기(L*W*H)	2450*1520*1410
	비료함	120kg(40kg*3칸)
	적정마력(HP)	70
	비료공급roller 구동전원	DC 12v

	모델명	3련 회전
	크기(L*W*H)	2450*1520*1700
	비료함	120kg(40kg*3칸)
	적정마력(HP)	100
	비료공급roller 구동전원	DC 12v

	모델명	4련 고정
	크기(L*W*H)	3300*1870*1450
	비료함	160kg(40kg*4칸)
	적정마력(HP)	110
	비료공급roller 구동전원	DC 12v

	모델명	4련 회전
	크기(L*W*H)	3600*1800*1700
	비료함	160kg(40kg*4칸)
	적정마력(HP)	135
	비료공급roller 구동전원	DC 12v

담당 부서	연구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오종 (063-238-0820)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이승윤 (063-238-0828)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깊이거름주기 장치
농업용 트랙터플라우 현장 활용 모습

